

가로 폭포

가로 협곡 입구에 있는 가로 폭포는 12m 높이에서 푸룻푸룻 우거진 숲에 둘러싸인 **에메칼드색** 용소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현도 317 호선에서 수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 하나입니다.

가로 폭포를 둘러싼 숲에는 단풍나무, 삼나무, 칠엽수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등나무 덩굴이 여러 나무를 감싸고 있습니다. 폭포 아래에 있는 투명한 용소의 깊이는 3~4m이며,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이 더위를 피하러 찾아옵니다. **가을이 되면** 밤나무, 단풍나무, 그리고 은행나무가 선명한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낙엽이 물가를 따라 **있는** 인도를 **뒤덮습니다**. 겨울이 되면 폭포가 얼어붙어 눈과 얼음 기둥을 만들고 밤에는 조명으로 빛납니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폭포를 바라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나고야 지방의 여행가이자 박물학자인 스가에 마스미(1754~1829 년)는 수십 년 동안 아키타를 여행하며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1802 년 그가 가로 폭포에 대해 **옅은 시는 근처에 있는**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furu yuki ka

내리는 눈일까?

hana ka aranu ka

아니면 옅은 꽃일까, 아닐까?

yamakaze ni

산바람에

sasowaretechiru

이끌리고, 옮겨지고, 흩어지는

taki no shira awa

폭포의 하얀 거품이네

폭포 옆에는 다키노사와 신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는 1780 년에 지어졌으며, 부동명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불교의 다섯 명왕 중 한 명으로 불길에 휩싸인 무서운 형상을 한 부처입니다. 예로부터 야마부시(산악 수행자)들은 부동명왕상에 기도를 올려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동명왕은 수행이 행해졌던 폭포 근처에 모셔져 있습니다.

가로 폭포 주차장은 후지사토마치에서 차로 약 10 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폭포와 다키노사와 신사까지 직접 걸어갈 수도 있고, 다카야마산(388m)으로 이어지는 임도를 통해 가로 협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이 길은 가로 폭포로 흘러드는 계곡을 따라 협곡을 지나갑니다. 주차장에서 도보로 약 30 분 가면 시라이토 이단 폭포를 지나갑니다.

시라이토 이단 폭포를 지나 다카야마산 등산로를 따라 계곡 안쪽으로 1km 정도 더 들어가면 또 다른 작은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다카야마산 정상까지 약 1 시간 걸리는 하이킹 경로의 등산로 입구입니다. 산 정상에서 등산로를 따라가면 시라카미 산지 세계유산센터 부근이 나옵니다.

가로 폭포 주차장에서 세계유산센터까지 이어져 있는 이 경로는 접근성이 뛰어나며, 후지사토가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나질 정도면 만끽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카야마산 등산로 입구까지 차로 가는 경우에는 비포장도로이고 바위가 많은 곳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